

순창군민체육대회 20일 개최

순창공설운동장서 이틀간 11개 읍면 참여

제57회 순창군민체육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순창공설운동장과 관내 보조구장에서 열린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16개 정식종목과 2개의 시범종목, 3개의 전시종목 등 총 2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어린 학생부터 군인,

어르신까지 전 군민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순창읍 외에 인계 동계면, 적성 유등면, 풍산 금과면, 팔덕 구림면, 쌍치 북흥면 등 2개 면을 1개 팀으로 구성해 인근 면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축구 본선경기를 시작으로 모든 경기가 경기장에서 열리며, 오전 11시부터는 군부대가 기수단으로 참여하는 각 읍면 입장식과 함께 군민체육대회의 막을 올린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과 함께 열려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군민체육대회에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57회 순창군민체육대회가 순창공설운동장과 관내 보조구장에서 열린다.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 확대

남원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이월부터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4·19혁명 유공자, 전상·공상군경 1급에서 6급(미망인 포함)까지 대상자가 확대하고, 6·25참전유공자에게는 2만원을 가산해 8만원을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생일축하금(5만원)을 지원하는 '호국영웅 해피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유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축하금은 별도 신청없이 주민등록 상 생일이 속한 월 초에 보훈수당 지급 계좌에 자동 입금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전상·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이며,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현장 밀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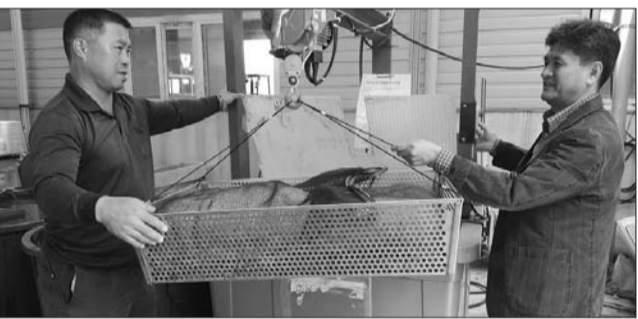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 종자소독 및 고추 육묘상 관리 등 영농 적기 추진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에도 벼 깨시무늬병을 포함하여 카다리병, 도열병, 이삭누룩병 등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벼 종자소독은 종자전염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묘 생산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인 만큼 우량종자를 사전에 준비하고 볍씨 소독 전 볍씨소독기 가동상태를 점검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종자소독에 지원을 통해 마을 단위 약제공급이 완료된 만큼 볍씨



임실군은 영농철을 맞아 종자소독 및 고추 육묘상 관리 등 현장지도에 나섰다.

소독요령에 따라 소독기 물의 온도를 30℃로 높인 후 물 20L에 종자 10kg 기준으로 종자소독약제를 약제별로 정량 희석을 권장했다.

또한 선충 예방을 위해 살충제도 같이 혼합해 48시간 침지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제법이라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어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온탕침법 소독방법으로 60℃의 물 300L당 볍씨 30kg을 10분간 담갔다 찬물에서 10분 식히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약제 소독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현판식

'물통골 한우마을' 선정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용남, 김종국, 이하 지사협)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한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 가게'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착한가게와는 별도로 순창읍 지사협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밑반찬 지원을 하는 관내 식당을 선정해 지난해부터 현판식을 갖고 있다.

착한가게 선정은 순창읍 지사협이 지난 2016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다.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업소는 물

통골 한우마을 등 총 6곳으로, 이로 인해 착한가게는 지난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종국 위원장은 "아무리 대가없이 지속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해주신 착한가게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날 함께한 김용남 순창읍장은 "밑반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봉사자들과 식당에 정말로 감사하다"며 "나눔을 참여한 기쁨을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뜻 깊은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읍 지사협이 추진하는 밑반찬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동시에 반찬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소외계층대상자들의 안부 및 안전 확인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무료 순환셔틀버스 운행

남원 제89회 춘향제전위원회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광한투원과 요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89회 춘향제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가 운운된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생비행장과 춘향골체육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25인승 미니버스) 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노선은 주생비행장~보전소~승사교4가(축제장)~구남원역~시창3가~춘향골체육공원을 순환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은 승사교 4가에서 하차해 축제를 즐기면 된다.

운행시간은 축제 첫날인 5월 8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행하며, 5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5일간 무료로 30분 간격을 두고 순환 운행한다.

춘향제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셔틀버스 운행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향상시키고 있다.

축제장 진입 차량은 분산시킬 수 있어 좋다.

보행환경 개선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춘향제전위원회는 이외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춘향제전위((063-620-57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 청년 일자리센터 개소

남원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청년 정책과 취·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센터를 개소했다.

청년 일자리센터는 남원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환주 시장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일자리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축항동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옆에 조성되었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카페형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일거리에 관련한 정보 제공부터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창업 관련 도서와 커피 머신을 비롯해 영상, 음향장비, 컴퓨터 시설을 갖추었다.

이환주 시장은 "공모사업과 각종 시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원천초

다목적체육관 영제관 준공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한 원천초등학교(교장 이문숙)는 풀나무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연마해 높은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학교에 건립한 다목적체육관 영제관 준공식을 가졌다.

영제관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및 주민들의 숙원으로 조성됐다.

또한 체육관 한편에는 접이식 3단 관람석을 마련해 체육활동이나 공연 시 안전과 효율성을 부기했다.

이문숙 교장은 "체육관이 준공되면서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러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